



즉시 배포용: 2023년 1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노인 뉴욕 시민들이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서비스와 장기적인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나이드는 뉴욕 시민들과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하고,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

EMS 서비스와 의료 운송의 활성화,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3년 시정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늙어가면서 건강하고 삶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고령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장기 진료 환경의 품질 및 투명성 향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홈 케어 팀에 대한 자금 제공, 간병인을 위한 임시 돌봄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건강 관리에 접근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도록 주 전체의 EMS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은 그들이 선택한 공동체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나이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감한 이니셔티브는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노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뉴욕의 고령 친화적인 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고령화된 서비스와 양질의 장기 의료에 투자함으로써 노인들이 살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ARP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적 지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전국 최초의 주로서의 뉴욕주의 지위에 기반한 Hochul 주지사에 의해 제시된 이니셔티브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EMS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의료 교통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령화 서비스 및 고품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장기요양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서비스, 고품질 장기요양, 그리고 노인 뉴욕 시민과 그들의 간병인들이 어디에서 돌봄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체론적인 팀에 투자하여 저소득 성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뉴욕 시민들이 제자리에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
-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족 간병인에게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제공.
- 요양원의 품질 보고 및 인증을 확립하고, 요양원의 품질 개선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뉴욕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응급 의료 서비스(EMS)와 의료 운송 활성화

Hochul 주지사는 의료 운송 옵션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특히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응급 의료 기술자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된 이니셔티브는

- 응급 운송 업체가 여행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도록 보장하고 더 복잡한 환자에 대한 지불을 늘립니다.
- 비응급 의료 운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방법을 권고하는 작업 그룹을 구성합니다.
-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EMS 기관과 공급업체를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는 9개의 지역 EMS 조직과 비상 시 인력과 장비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주 전체 EMS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EMS 제공업체가 지역사회에서 확장된 임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EMT가 환자를 제자리에서 치료하거나 출장 비용을 희생하지 않고 환자를 긴급 치료 클리닉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부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그리고 미국 최초의 고령 친화적인 주로서, 뉴욕은 고령화 인구의 요구에 의료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에게 고령화된 뉴욕 시민들이 고품질의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노령화 및 장기 요양 부커미셔너인 **Adam Herb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님께서 고령화된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 기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뉴욕을 모범 사례의 선두에 서게 하는 그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부국장인 **Greg Ol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고령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존엄성과 선택으로 나이를 먹을 수 있는 노인들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저는 지역사회 기반 진료 옵션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장기 진료를 개선하고, 응급 의료 운송을 강화하자는 이러한 시정 제안을 해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주지사가 무급 가족 간병인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중 70%는 역할의 스트레스로 인해 팬데믹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정신 건강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으며, 인구의 약 16%인 320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뉴욕주의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까지 530만 명으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인구는 1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가을, 나이가 들면서 모든 세대의 뉴욕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사상 최초의 고령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령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for Aging)이 완성되면,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기존 및 새로운 주정부 시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동시에,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늙어갈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사소통, 조정, 돌봄, 장기 돌봄 자금 조달 및 혁신적인 돌봄 모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